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공무원연금기금
-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15시2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임해 주셨던 국정감사를 포함한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합해서 정부 부처의 예산안에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내년 을사년 새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기관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되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현안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예산안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선택하여 질의할 수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지난 9월 23일 첫 활동을 개시한 행정위원회인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기관으로 배석하였습니다. 위원장에 선출된 송기춘 위원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무겁고도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드리면서 특조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꼼꼼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밤하늘의 별이 된 159명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 기관에서도 특조위가 정상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과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춘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일을 맡게 된 송기춘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2년 전 발생했던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예정되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임명되어서 현재 두 달 정도로 활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 위원회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내년 1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직과 예산 지원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특조위 구성이 정부 예산안 제출보다 늦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안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 시 이 점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장님과 행안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특조위의 늦은 출발이 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자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몇 분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권규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명이 넘게 부상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집회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나치게 경찰에서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중재하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뒷덜미를 잡혀서 땅바닥에 깔리고 상의가 흉하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것은 지난 9월 국회 부근에서 발생한 박홍배 의원 부상과 데자뷔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특검 촉구 집회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껴서였는지는 몰라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집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할 뿐 너무 많은 인원이 제한된 면적에 운집하여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다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참사 2주기가 금방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이 염려되니까 차선을 더 열어 달라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주최 측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실상의 집회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 보자는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2년이나 지난 사안을 지금에서야, 그것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모호한 혐의를 갖다 붙인 것은 펄펄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지 억누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는 국립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총장님을 만나려고 농성하던 대학생들이 이제 농성을 풀고 퇴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을 학내로 진입한 경찰이 강제연행을 했다, 저는 이런 사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 경찰에게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찰은 그 힘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부부의 보위에만 신경을 쓸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소환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모조리 무혐의 송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 심사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의 이런 폭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앞서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집회는 민주노총의 1차 퇴진 총궐기 집회였습니다.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에만 진압복을 착용한 다수의 기동대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의 관리가 아닌 진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은 좁은 공간에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가두려 해 경찰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상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한창민 의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 주시고 만일 사과가 없으면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 시민들 열한 분이 다쳤다고, 열한 분이 연행이 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찰 부상자들은 105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께서 경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공권력의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그런 부상만 들추어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박정현 위원 과잉진압이 경찰……

○김종양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과잉진압이 문제인 거지요.

○김종양 위원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툭툭 튀어 나오기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과잉진압이 문제지요, 과잉진압이.

○위원장 신정훈 발언권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맞은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특 튀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의사진행발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윤건영 위원 아니, 김종양 위원님이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셔서 그런 거니까……

○김종양 위원 상대방의 맞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제가 언제 경찰의 피해에 대해서 모른 척을 했습니까?

○김종양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존중하면서 그대로 그냥 수용해라는 이야기예요?

○박정현 위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양 위원** 과잉진압이라니요, 정당한 법 집행이지.
- **박정현 위원** 무슨 정당한 법 집행이에요?
- **김종양 위원** 불법행위를, 당초의 집회 신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 **박정현 위원** 불법행위를 유도한 거지요, 그것은!
-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잠깐만요.
- **김종양 위원** 경찰이 누가 불법행위를 유도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말이야.
- **박정현 위원** 현장을 보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본인의 주장만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도 하여튼 자기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양 위원** 많은 외국 언론에서도 우리 한국 경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도심지에서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어도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은 국제회의에 나가서 다른 치안 최고 책임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경찰이 그렇게 선 공격하는 그런 경찰이 아닙니다. 인내를 하고 집회 신고대로 준수하라는 수없이 많은 경고라든지 요청 이후에 그래도 여러 가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물론 시민의 부상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부상은 더 중요합니다. 105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 안 하고, 적어도 제가 봐서 정치인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제발 원칙대로, 신고되는 대로 준수하는 그런 집회의 모습을 보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다른 모든 부분은 짹 제외시키고 부상당한 그리고 또 국회의원 부상당한, 그 집회 아수라장 된 그런 판에서 누가 국회의원이고 그런 걸 어떻게 다 가려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부상 입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성시해 가지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집회 참석자들한테 우리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따라 주자 그리고 불법행위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물론 시민들의 부상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지만……

-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 **김종양 위원** 경찰관의 부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도심지에서 이런 아수라판이 되는 그런 집회·시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톱10에 드는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주말마다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계속 또 봐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 **김종양 위원** 준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조성에 같이 앞장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달희 위원** 저는 지난 주말에 벌어지는 그 집회의 라이브 방송을 조금 봤습니다. 볼 때 아찔했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이 방패를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멘트에 ‘경찰관에게 폭행하면 체포합니다’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몸을 부딪히고 방패 없는 쪽에 그냥 들어가서 경찰들하고 몸싸움 유도를, 아까 위원님께서 불법 유도를 하셨다는데 폭행, 경찰한테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질서를 지켜서 시위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이 옛날 같은, 예전에 우리 죽창으로 버스를 뒤집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첫 번째……

○ **이광희 위원** 보셨어요?

○ **이달희 위원** 어제 라이브로……

○ **이광희 위원** 보셨어요? 어저께 집회에서 죽창 드는 것 보셨냐고요?

○ **이달희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무슨 죽창을 들어요, 어제?

○ **이달희 위원**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 **이광희 위원** 방금 죽창 들었다면서, 어저께 무슨 죽창을 들어요? 보셨냐고?

○ **이달희 위원** 아니요,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 집회의 과잉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잉방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 **이달희 위원** 광우병 사태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발언을 좀 듣고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희 위원** 정권 퇴진을 빌미로 정치적 선동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 잡고 법치주의와 원칙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위원** 이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누가 판단합니까? 심지어 김종양 위원님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찰이 그렇게 무장하고 방호복을 갖추고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2015년·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

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했던 경찰의 옛날 벼룩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벼룩 개 못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아주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것은 저는 행안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위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든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집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으로써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해당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회의 원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가량 살고 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특히나 선진국들은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집회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경찰한테 통보만 하는 거지요. ‘나는 백악관 정문과 동문과 서문을 거쳐서 후문으로 행진을 할 거야’라고 하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은 집회 주최 측이 그려 놓은 선에 맞춰서 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미국에서 하지요. 총기까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집회할지는 집회 주최자가 정합니다. 이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freedom of speech)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새 가 가지고 막 새벽에 등록을 하고 이 장소가 내 장소니, 네 장소니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 허가하고 어떤 집회는 허가하지 않는다? 경찰이 뭐라고 그런 권리를 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지를 먼저 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사과를 받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청장이 지금 어떤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경찰청장 때 질의를 했고 지난 전체회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영상 잠깐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이 영상 이제 보셨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동영상 트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이제 꺼 주세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끄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영상 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성희 위원 청장님, 청장에게 확인해 주실 것은…… 청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방패를

들고 걸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진압이 아니라 걸은 행위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걸 걸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진압을 경찰청장이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청의 경비계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고 경찰청장은 아직 못 봤다라고 회피했는데 이제 봤을 테니까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 보시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제 청장님의 이야기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네 분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래요?

그러면 조은희 위원님까지 이야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서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 안 할 수도 있다고 육박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지금 공권력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지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11명이 체포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적반하장으로 폭력연행 운운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석방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때 주말에 어떻게 했냐, 집시법상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종결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한 것입니다.

통로를 개척한 게 강경진압이고 이런 강경진압 때문에 예산안을 하는 전체회의를 할 수가 없고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내밀며 불법 점거와 폭력시위를 일삼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한동안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지난 토요일, 매주 도심 장외집회 시위를 하면서 3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시는 것. 그렇지만 예산안 전체회의를 볼모로 민주당의…… 우리 당의 강경한 어떤 지지자들은 방탄집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 의사진행발언 이따가 좀, 머무르시고요.

왜 경찰청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전체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위원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계속 들었던 이유는 본 위원장으로서도 경찰에 여러 차례, 국감 과정에서라든가 또 현안 질의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

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찰의 업무집행 내용은 대단히 불안한 조짐을 느끼게 합니다.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우리 80년대 이후에 수많은 집회와 진압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권력의 의도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불가피하고 또 최소한의 절제된 공권력의 집행 과정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달에 금융노련의 여의도 앞 집회에서부터 지금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청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이 경찰의 직무집행은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위 말해서 발생하는 현장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진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이고 과잉이고 또 집회가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또 집회하는 시민들은 선량한 국민들로서 경찰력에 의해서도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압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업무집행을 하는 뉘앙스, 느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경찰 수뇌부가 어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업무집행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국민으로서 또 수많은 집회·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이라든가 관리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정말 공권력의 사유화다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시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권의 집행이 요즘 집회 과정에서 집회마다 보수 집회하고 민주당과 진보 또 사회단체가 하는 집회하고 관리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현장에서의 보수 집회의 널널한 여유 있는 운영과 민주당 주최의 또 노총 주최의 집회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주 위험천만했어요. 마치 그냥 이런 충돌을 유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들의 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국회에서는 반드시 보호하고 엄중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부산 국립대학 캠퍼스에 경찰인력 투입한 내용, 지금까지 80년대 상황에서나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불안하게 느끼는 그 징후를 저는 심각하게 이 부산 대학 공권력 투입의 내용에서 지켜봅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만큼 진압하기 어려웠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경찰이 보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충돌을 유도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집회 관리에 대해서 저는 조지호 청장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조지호 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무리한 업무집행 그리고 과잉 직무집행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청장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신중하게 판단

하시고 이 자리에서 경찰의 입장,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먼저 지난 주말에, 주지하시다시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이탈해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이 되었고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경대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동경비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준법 집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철저하게 보장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결처분 요청도 하고 해산 명령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충돌에 대해서 유도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추가로 묻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부경대에서 경찰의 대학 진입이 소위 말해서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회사 측이나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에,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학교 내에 투입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학생들에 의해서 유형의 폭력이 행사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학교를 점거한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점거농성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어느 모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청장은 하면서 당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가만 있으세요.

○조은희 위원 지금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뭐니까? 위원장님 너무 진행을.....

○윤건영 위원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은희 위원 현안 질의 때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이것은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이걸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주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주도할 만하니까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는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윤건영 위원 이런 걸 안 짚고 가면 어떡합니까, 국회가?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회의를 주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80년대 다 겪어 봤어요, 우리가!

○**조은희 위원**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 간사님 끼어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신정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회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부터 일관되게 해 온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야기한다,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주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장님, 학교 측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부경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동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동을 해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걸 문제를 삼으시면 학교라든지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고 이것은 치외법권 상황인 겁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사과할 것 아니면.

○**경찰청장 조지호**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장께서는 그 부경대 진입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그 내용을……

○**위원장 신정훈** 사후적으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간단하게 부산청장으로부터 문자로 보고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문자로 보고받았을 정도면서 저런 식으로……

위원장님 저 진행발언 좀……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진행발언하셨지요?

○**이광희 위원**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저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안 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얻기 정말 힘듭니다. 하도 떠들었더니 그런가……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오늘 왜 이 사과가 중요한가, 왜 경찰청장님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지를, 왜 이게 중대한 문제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공안정국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공안정국은 저 80년대에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경찰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집회 하루이틀 관리해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집회신고 내용 보면 15개소에서 사전집회하고 본집회 장소인 대학로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부러 좁은 구역에 집회 허가를 하고 집회 참가자가 허가구역으로 나올 것을 기획한 듯이 제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서 토끼몰이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두 번째는 경찰이 삼단봉과 방패로 무장한 특수진압복을 입은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도심집회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광경이었고요. 최근 도심집회에서 이토록 중무장한 경력이 투입된 적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80년대 백 골단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0일 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하던 그 아홉 명, 이게 백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 측의 요청이라고요? 옛날에 학원 유린 할 때도 늘 하던 레프토리가 ‘학교 측의 요청’이에요.

○조은희 위원 이것 본질의 아닙니까? 왜 주세요?

○이광희 위원 경찰이 어디다 대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해도 됩니까?

○이광희 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조은희 위원님! 저 얘기하는 중입니다.

○조은희 위원 저도 한번 따라 해 봤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평소하시는 대로.

○이광희 위원 예, 잘하셨어요.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봄까지……

○조은희 위원 지금 현안 질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광희 위원 2016년부터 2017년 봄까지 박근혜 탄핵 요구 집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잘, 그것도 경찰의 도움 아래 이렇게 끝냈습니다. 당시에 물리적 충돌 자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집회를 안전하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고요. 80년대 공안통치로 진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 같아서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들어오고 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돼요. 왜 이전 청장들이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었던 것을 청장님께서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조은희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이광희 위원 행안위에서 행안위 위원으로서 이것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막으려

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정춘생 위원 정춘생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춘생 위원님.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의사진행발언 안하고 청장의 사과를 받고 예산 심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갑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경대에 총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행 체제인데 윤석열 퇴진 관련해서 국민투표하겠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농성을 3일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총장실 점거한 것도 아니에요. 복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수십 명이 하는 그 학생들을 진압하려고 수백 명의 경찰들을 들여보내는 게 지금 2024년도에 벌어질 일입니까, 청장님? 그것을 어떻게 ‘요청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창민 의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창민 의원은 그 당시에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중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중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듣지도 않고 계속 무리하게 진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짓밟히고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앞으로도 경찰이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지 않고 계속 무력 충돌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에 반드시 오늘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나 어떤 특정 시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기조가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한 마음으로 충고드리고 또 조언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 있던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겠다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학 캠퍼스 내에 경찰력 투입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 대규모의 또 장기간의 농성 또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지금 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자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그것도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말란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고요.

제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진압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의 변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한, 집회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청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현장을 관리했던 서울청의, 소위 말해서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경정,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마치 국민들을 진압해야 될 대상처럼 발언하고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직무집행에 대해서 지금 청장이 계속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제를 시키고 절제하게…… 최소한의 절제된 공권력의 사용을 지금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충돌했던 것, 우발적인 충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대한민국의 다수·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거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찰력의 공권력 집행 과정,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경찰청의 입장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부족했다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준은 분명합니다. 준법 집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호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데 경찰이 앞장설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광희 위원 그래서 특수 진압복 입고서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말 좀 그만하세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지금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불법행위로 변질이 돼서……

○이광희 위원 뭐가 묵과할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집회·시위 한두 번 해 봄니까?

○조은희 위원 이광희 위원님, 좀 그만하세요, 그만.

○이광희 위원 아니,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사과를 안 하고 계속 3단 진압봉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은희 위원 경찰청장에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의 물리력을……

○이광희 위원 지금 토키몰이식으로 물리력 행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늘 절제된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들과 인식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난 11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왜 조지호 경찰청장님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조승환 위원 좀 발언권을……

○이달희 위원 발언권 좀 얻고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왜 청장님이 하시려고 해요, 이전 청장들이 안 했었던 것을! 왜 사과 안 하십니까?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중지시키고 퇴장 명령하세요. 정청래 위원장 같으면

당장 퇴장 명령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정청래 위원장같이 했으면요 이 회의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김종양 위원 정청래 의원보다도 발언 양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가끔 정청래 의원님을 꺼내시던데……

○조은희 위원 안 꺼내요.

○김종양 위원 아이, 미안합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꺼내셨잖아요. 비교는 하지 마세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권력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게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말씀드리는 건 지난 토요일 날 우리에게 보여 준 경찰의 모습은 일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수 집회 현장을……

제가 그날 토요일 날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보수 집회 하는 곳을 보면 호텔입니다, 이건. 경찰이 거의 호텔식으로 집회 보장을 철저하게 다 해 줍니다. 민주당 집회 현장에 와 봤습니다. 아스팔트 땅바닥에 버려진 시민들입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라고 해서 말을 특별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창민 의원이 경찰들에 의해서 목이 잡혀 가지고 쳐박혔습니다. 영상으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대학교에 경찰이 무도하게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잡아 오는 것, 이것 80년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80년대 공권력을 지금 2024년에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국회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한테 답변을 분명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민주당 집회와 보수 집회, 과연 공정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편파적이어도 이런 편파적인 집회 관리는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로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토요일 날 당일 집회에 있어서 강경 진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장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경찰은 대단히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완전 무장하고 진압하듯이 다녔습니다. 민주당 집회 한가운데로 완전 진압복장을 한 경찰들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이런 집회 관리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청장이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물어봐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형평성 있는……

○**김상욱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듣고 또 언론 보도자료도 좀 봤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위에 참석한 적도 있었고 또 군 복무를 전투경찰로 하다 보니까 시위 진압에 동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경찰관도 우리 국민이고 또 시위에 참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도 우리 국민입니다. 모두 다 보호받아야 되고 또 공권력의 행사도 또 시민들의 집회·시위 참여권도 모두 다 보장돼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번 시위·집회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전투경찰로 복무를 할 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 시민 한 명, 한 명과 또 진압하는 전경 한 명, 한 명이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주도하는 쪽에서도 사고가 나면 더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면이 있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복무할 당시 시위를 뒤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경찰 지휘부도 경우에 따라서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진압에 동원된 경찰들 모두 우리 국민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위를 보면서도 저는 본질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회·시위를 기획하는 주최 측에서 장소와 또 행진 구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경찰과 협조와 회의를 했었으면 서로 간의 충돌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행여라도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이나 또는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진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돌을 통해서 또는 불상사를 통해서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시민들께 또 경찰관들께 정말 너무나 나쁜 생각이고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경찰과 장소와 진행 구간에 대해서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고 경찰에서도 관련해서 합당한 요구라면 일반 통행하는 시민들께 최소한의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면서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피와 또 경찰관들의 피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시민들도 지켜지고 경찰관들도 지켜지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이성권 위원** 30초만.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성권 위원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진짜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성권 위원 경찰의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폭력 진압을 했다거나 이게 중요한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원래 우리가 상정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안하고 또 기금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건 중에, 야당 위원님들이 요청하셔 가지고 현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안 사항입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이 회의에 그냥 들어가면 그것 가지고 경찰청장님이 되든 또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가 되든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청장의 사과 없이는 오늘 회의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래 우리 목적에 맞게 해 주시고 충분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내용들은 현안 질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들어가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15초만 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경찰청장님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유를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경대 사건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진압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진보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전리품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보수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 반대는 진압해서 뭔가 실적을 거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지난번 박홍배 의원 사건에 있어서도 그 현장을 지휘했던 경비계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일한 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장님의 이러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거 사과 받으시고 안 되면 산회를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살림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의사일정인데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또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권력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장시간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요,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대개 일단은 형평성이 있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공권력의 집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소위 말해서 불법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고 또 무관용의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방식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사라졌던 이야기예요. 이 문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금융노련 여의도

집회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때도 보수 집회와 또 노조 집회에 대한 음향기기, 소위 말해서 보관 조치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대단히 선제적이에요, 선제적. 공권력의 집행이, 법 집행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세 번째, 국회의원이 특권 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박홍배 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밟혔지만 경찰 당국에서 청장 전화라도 한 통 하셨는가요? 어제 한창민 의원 짓밟혔는데 청장의 오늘 아침 이 기자회견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아무리 국민 일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밟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공권력은 이미 형평성과 평상심을 잃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학은 독재정권,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함부로 침탈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탄핵을 위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정권에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국민들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공권력을 투입해 놓고 메시지로 보고받았다…… 경찰청장 정말 좀 심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을, 제가 사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중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먼저 동시에 있었던 보수 집회와의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집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인원보다 적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주최 측에서 거기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이후에 본인들도 추가 차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로만으로도 밀집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차로 확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주최한 집회에서 밀집도와 관련해서 숭례문을 중심으로, 최초의 본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앞까지가 본집회 장소이고 숭례문에서 한은 로터리까지의 차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역까지의 차로가 추가로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까지 가는 남쪽으로의 차로는 비어 있었고 한은 로터리까지 가는 차로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집회 장소의 후미인 덕수궁 대한문 앞 사거리와 세종대로 남북 간의 전 차로를 118분에 걸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요 도로인 세종로가 동서남북으로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경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자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히 다른 차원으로 기획하거나 대단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바라보고 한 건 아니다, 일반 112 사건에 준해서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찰의 일반적인 그런 법 집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일을 해 놓고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어떠습니까,

도대체?

○윤건영 위원 아니, 그래서 뭐 어찌겠다는 겁니까, 청장님?

○김종양 위원 아까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본질의 때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조은희 위원 본질의 때 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학교의 학생들을 학교에 들어가서 연행하는 게 지난 80년대 이후에 없었는데……

○이성권 위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잖아요.

○이광희 위원 아니, 저게 해명이 안 되니까 그러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성권 위원 아니, 해명이 되지요.

○이광희 위원 저게 해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

○김종양 위원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성권 위원 안 받아들이려고 작정을 하고 받아들이시니까 그렇지요.

○이광희 위원 왜 조지호 청장이 뭘데 학교를 침탈해 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갑니까?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용혜인 위원 퇴거를 하겠다고 결정한 과정에서 학생들 잡아가신 거잖아요.

○이성권 위원 정해 놓은 결론 안 나온다고 해서 해명 안 했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이광희 위원 무슨 해명이에요, 저게?

○조은희 위원 진행을 너무 이러시면 저희도 더 나가겠습니다. 레벨 업을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나가셔도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야당 위원들이 했던 집회에 대해서 청장이 그렇게 두리뭉실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만 보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이성권 위원 그리고 현안 질의 때 하세요. 현안 질의 때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이 문제는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당이.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장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물론 공권력도 책임과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청장의 최소한의 유감,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짓밟히고 국회의원이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그리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요청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번에 진압부대에 있던 현장 책임자의 발언과 눈빛 도저히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전혀 존중한 바가 없어요. 오로지 공권력과 법, 법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조지호 청장님 경찰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후속 의사일정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차관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김정기
경찰국장 박현수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천지윤
윤리복무국장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 최관섭
혁신기획실장 박재경

경찰청

청장 조지호

기획조정관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경비국장 임정주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재정담당관 임현규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배덕곤

기획재정담당관 고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한성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층 참석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기획국장 김인수

정보관리국장 김수연

선거1국장 윤재수

조사국장 최희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강석봉